

# 'Made In Gwangju' 전기차 쏘울EV 잘나간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만드는 '효자 차종' 쏘울이 국내의 전기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기차와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쏘울 EV, 전기차 활성화에 한몫=18일 기아차에 따르면 전기차 모델인 쏘울 EV는 올 1~5월까지 국내에서 740대가 팔려 같은 기간 쏘울 판매량(1068대)의 69.3%에 달했다.

쏘울의 3가지 모델(가솔린과 디젤, 전기차) 중 전기차 모델 비중이 70%에 이르며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셈으로, 가솔린·디젤 등 내연기관 모델이 전기차 모델보다 훨씬 많이 팔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지난 2014년 5월 쏘울 EV 모델 출시될 때만 해도 9.2% 수준이던 전기차 판매 비중은 지난 2016년(28.4%·729대)에서 지난해 68.2%(2051대)로 급증하더니 올해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 ... 올해 5월까지 국내 740대 팔려  
근거리 출퇴근용으로 인기 전기차 시장 활성화 큰 역할  
하반기 풀 체인지 모델 출시 국내외 시장 판매 급증 기대

5월까지 69.3%로 치솟았다. 전년도 같은 기간(1~5월) 판매량(426대·45.1%)과 비교해도 확연한 증가세다. 쏘울 EV 인기로 힘입어 전체 쏘울 국내 판매량도 ▲2015년 4047대에서 ▲2016년 2568대로 꺾였다가 지난해 3007대로 반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쏘울 EV 판매가 급증한 데는 지난해 새로 출시된 2018 쏘울 EV 효과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존 148km에서 180km로 늘어나는 등 상품성이 개선된 데다, 레저용차량(RV) 특유의 넓은 실내공간, 개성적인 외관 등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했다는 평가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0~400km에 달하는 전기차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도, 근거리 출퇴근용 전기차가 필요한 여성 운전자나 세컨드카 수요자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점 등은 이러한 이유가 반영됐다는 게 기아차 광주공장 측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기차 확대·보급을 위한 정책·구상을 잇따라 내놓으며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의지도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광주시에 지난해까지 전기차에 대해 2100만원(국·시비 포함) 보조금을 지급했고 올해도 1406만~1900만원까지 보조금

을 지급할 예정이다.

◆쏘울, 기아차 광주공장 대표 모델=쏘울 EV는 기아차의 대표 전기차로 광주공장에서 생산된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018 쏘울 EV는 최고출력 81.4kW, 최대토크 285Nm의 고성능 모터와 30kWh의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로, 급속충전 시 23~33분(100kW/50kW 급속충전기 기준), 완속충전 시 5시간 40분에 충전이 가능하다.

쏘울 EV는 출시 이후 21개월 만에 국산 전기차 최초로 글로벌 시장에서 1만대 판매를 돌파하는가 하면, '2015 올해의 차(노르웨이 소비자단체 조사)', '2015 올해의 차' 시티카(City Car) 부문 1위(캐나다 자동차기자협회) 등에도 이름을 올리며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기아차는 올 하반기 '쏘울' 풀 체인지 모델을 출시할 예정으로, 국내외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현대차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출시

6인승·9인승 승용차

현대차가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을 출시, 판매에 들어갔다.

스타렉스 리무진은 지금까지 11인승 승합차로 출시됐으나 새 제품은 6인승과 9인승 승용차로 바뀌었고 승합차에 걸려 있던 속도제한(시속 110km)도 사라졌다. 9인승 모델의 경우 6명 이상이 탑승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도 운행할 수 있다. 스타렉스 리무진은 디자인을 변경하고 리무진 전용 사양을 대폭 적용해 고급감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하이루프는 설계를 개선해 지하주차장(높이 2.3m 이상)도 출입할 수 있게 했고 뒷좌석 승객들이 주로 타고 내리는 오른쪽 뒷문에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해 버튼만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도록 했다.

6인승 모델에는 국내 완성차업계 최초로 좌석 1·2열 사이에 '멀티미디어 파티션'을 두고 ▲21.5인치 전동식 상하 슬라이딩 모니터 ▲8인치 터치스크린 ▲휴대전화 수납함·USB 포트 등을 갖췄다.

현대차는 올해 중 스타렉스 리무진의 사륜구동 모델도 출시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국GM, 중형 SUV '이쿼녹스' 출시·시승 행사

미국서 가정용으로 인기

한국GM은 18일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이쿼녹스'의 시승 행사를 열고 차를 미디어에 공개했다.

국내에서 처음 판매되는 이쿼녹스는 미국 '가죽용 SUV' 시장의 인기 제품으로, 지난해 29만 대가 판매됐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GM 생산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수입해 들여왔다.

한국GM 관계자는 "이쿼녹스는 고강성 경량 차체가 제공하는 탁월한 퍼포먼스와 최첨단 능동 안전 시스템, 뛰어난 연비 효율을 가진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쿼녹스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절

기인 '춘분', '추분'을 뜻하는 단어다.

이쿼녹스는 차체의 82% 이상에 고강력·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하면서도 스마트 엔지니어링 등으로 차체 하중을 줄여 이전 세대보다 180kg 가벼우면서도 22% 이상 높은 차체 강성을 실현했다는 게 한국GM측 설명이다.

특히기술인 랩터 시트(무소음 진동 경고시스템), 시터 브레이크 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전방 거리감지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차선이탈 경고·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등 최첨단 능동안전 시스템을 기본사양으로 장착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기아차, K5 K7 '월드컵 에디션' 출시 ... 월드컵 마케팅



기아차가 K5와 K7의 '월드컵 에디션'을 내놓는 등 월드컵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월드컵 에디션 제품은 ▲전방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이탈 방지 보조 등으로 구성된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으로 적용되며 고객 선호사항을 추가해 상품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K5 월드컵 에디션의 경우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트림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LED 헤드램프 및 안개등 ▲1.6 터보 18인치 스포티 알로이 휠 ▲가변형 무드 조명 ▲D컷 스티어링 휠 ▲전방주차 보조 등의 기능이 탑재됐다.

K7 월드컵 에디션은 2.4 가솔린 리미티드 트림에 ▲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카드 타입 스마트키 ▲휴대폰 무선충전시스템 기본 적용됐다. K5 월드컵 에디션은 2780만원, K7 월드컵 에디션이 3500만원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 짚이야?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기능성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완벽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단면육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 1588-2219